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체험형] 선정 심 의 평

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체험형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이 어려운 군인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북돋우고 군복무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이므로, 심의위원회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체험형 프로그램은 시각예술, 전통예술 두 가지의 장르에서 총 97개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하였고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인 계획성, 실현가능성, 문화가 있는 날 홍보 효과 등을 체크하였고 군인들이 참여를 할 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인가도 검토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해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참가 신청자(단체)의 수준과 프로그램이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시각예술의 경우 군부대 장병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치유와 창조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예술 분야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수준과 활동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한 단체들의 관심에 매우 감사하며, 향후 시대의 흐름과 젊은 세대의 변화된 정서와 의식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기대해 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체험형) 심의위원 일동